

아제르바이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8.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2

I. 일반개황

면적	86.6천 km ²	G D P	392억 달러 ('17)
인구	9.5백만 명	1 인 당 GDP	4,098달러 ('17)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Azerbaijani Manat(AZN)
대외정책	EU 협력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추진	환율(달러당)	1.72

- 1991년 독립이후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2003년에 취임한 알리에프 대통령이 2018년 4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4선에 성공하여 2025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됨.
-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에 대형 유전,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고, 서방에 너지 기업들이 에너지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터키로 연결되는 송유관, 가스관을 건설하고 석유와 가스를 공급하고 있음.
- 1990년대 초에 발생한 아르메니아와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영토 분쟁이 지속되며 현재까지 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친서방정책을 추진하며 EU와 에너지, 운송 등의 부문에서 경제협력관계를 맺어 왔으며, 2014년 이후에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e	2018 ^f
경제성장률	2.7	0.7	-3.1	-1.0	1.3
소비자물가상승률	1.4	4.0	12.4	12	8.0
재정수지 / GDP	2.7	-4.8	-1.1	-0.3	0.7

자료: IMF

□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지표 다소 개선

- 카스피해 지역의 새로운 유전의 개발 부진과 생산정체로 2010년 이후 원유 생산량이 감소추세이며, 이는 경제성장률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 전체 원유생산의 80%를 생산하며, 매장량이 50억 배럴로 최대 유전인 ACG(Azeri-Chirag-Guneshli)의 생산 정체로 인해 원유 생산량은 2010년 최대 생산량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임.
 - * 원유 생산은 2010년 5,080만 톤을 생산한 이후 2012년 4,210만 톤, 2015년 4,160만 톤, 2016년에는 4,100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경제성장률은 원유 생산정체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2014년의 2.7%에서 2015년 0.7%, 2016년 -3.1%로 하락하였음.
- 2016년의 -3.1%에 이어 2017년에도 -1.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8년에는 에너지 생산 증가로 1.3%의 플러스 경제성장률로의 반등이 전망됨.

- 최대 가스전인 샤 데니즈(Shah Deniz)-2 가스전이 2018년부터 생산을 개시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스 생산과 수출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 샤 데니즈 가스전은 BP, Statoil이 각각 25.5%, SOCAR(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공사), Lukoil, Total, NIOC 등이 각각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는 2단계 개발이 마무리되는 2018년부터는 연간 20억 m³, 2020년에는 60억 m³의 추가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샤데니즈 가스전과 가스관



자료: https://www.bp.com/en_az

□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 추세

- 2016년 마나트 환율 평가절하에 따라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2.4% 상승하였으며, 2017년에도 12% 상승하였음.
- 중앙은행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에 대응하여 2016년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기존의 3%에서 15%로 큰 폭으로 인상하였으며, 2017년에는 1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였고, 2018년 2월에는 물가상승률 하락에 따라 13%로 인하하였음.
- 2018년에는 국제유가 안정에 따라 환율이 안정되며(2017년 1월 달러당

1.82 마나트를 기록하였으며, 4월 이후 달러당 1.7 마나트를 유지), 물가상승률도 8.0%로 전년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폭 감소

- 국제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에너지 수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폭은 감소함.
-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6년의 GDP 대비 -1.1%에서 2017년에는 -0.3%로 줄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국제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0.7%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편중된 경제구조

- 아제르바이잔은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이 전체 수출의 90%, 재정의 60~70%, GDP의 1/3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대외경제 환경의 변동에 따른 영향으로 안정적인 경제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에서 '2015~2020 산업 발전프로그램' 등을 통해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WTO 가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내산업의 경쟁력 취약으로 단시일 내에 가입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은행 부문의 취약

- 은행권 부실여신의 비중이 높으며, 정부는 2017년 최대은행의 채무재조정을 실시하였음.
- 금융 부문이 취약하여 신규대출과 기업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정부는 2017년 5월 최대 은행인 IBA가 만기도래 원리금 상

환에 실패한 이후, 33.4억 달러 규모의 채무재조정을 실시하였음.

- Moody's는 2017년 8월 금융권 채무재조정으로 인한 정부부채 증가와 금융 부문 취약성 지속에 따라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조정 한 바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부존자원 개발 및 자원수출을 통한 자생력 보유

- BP의 자료에 의하면, 아제르바이잔은 2016년 말 기준으로 확인매장량 70억 배럴(세계 확인매장량의 0.4%)에 달하는 원유와 1.1조 m³(세계 확인매장량의 0.6%) 규모의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음.
- 2016년 기준으로 원유 생산은 연 4,100만 톤으로 세계 전체 생산의 0.9%이며, 천연가스 생산은 175억 m³로 세계 전체 생산의 0.5%를 기록함.
- 유럽의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아제르바이잔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해 TANAP(Trans-Anatolian Pipeline)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
- TANAP 가스관은 샤 테니즈에서 터키로 연결되는 가스관으로 SOCAR 59%, 터키 BOTAS 30%, BP 12%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 TANAP 가스관 건설에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5억 달러, 유럽투자은행(EIB)이 11.5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음.
- TANAP 가스관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TAP(Trans-Adriatic Pipeline)와 연결되며, 이를 통해 그리스, 알바니아, 이탈리아 등으로 연 100억 m³의 가스를 공급하게 됨.

<그림 2> TANAP, TAP 가스관



자료: www.offshoreenergytoday.com

□ 운송인프라 발전을 통한 물류망 확대와 주변국들과의 협력 확대

- 2017년 10월의 바쿠-트빌리쉬-카르스(Baku - Tbilisi - Kars, BTK) 철도 완공을 통해 조지아를 거쳐 터키로 연결되는 물류망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됨.
 - 이 철도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터키 간의 협력으로 2005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중장기적으로 중국, 인도의 화물을 유치하여 운송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완공 초기에는 연 650만 톤의 화물과 100만 명의 여객을 운송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최대 물동량은 연 1,700만 톤으로 추정됨.
- 중국에서 아제르바이잔을 통과하여 유럽으로 연결되는 트랜스 카스피해 국제교통로(TITR)를 통한 운송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TITR은 중국에서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터키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화물을 수송하는 운송망이며, 이 운송루트를 통해 약 4,200km의 거리를 8일에 걸쳐 운송할 수 있게 됨.

□ 관광 부문 육성

- 정부는 관광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1월에는 구바, 구사르, 히지-나브란 등 3개 지역을 관광 지역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 BTK 철도를 비롯한 운송 인프라의 개선은 관광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에너지 수출소득을 활용한 경제, 사회 인프라 부문 투자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에너지수출소득으로 국부펀드(SOFAZ: State Oil Fund of Azerbaijan)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펀드를 통해 정부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 SOFAZ는 2017년 61억 달러를 정부 예산으로 지출하였으며, 2018년도 약 92억 달러를 정부 예산에 지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에너지 수출소득 증가에 따라 국부펀드 기금은 2017년 말 기준으로 358억 달러를 기록하여, 연초의 331.47억 달러에 비해 8%가 증가하였음.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국부펀드 자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제, 사회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대표적인 인프라 개발로는 바쿠-트빌리쉬-카르스(Baku-Tbilisi-Kars: BTK) 철도, 사무르-압쉐론(Samur-Absheronaz) 관개시설, 정유 설비 등의 건설이 있음.
 - 사회부문의 인프라사업으로는 아르메니아와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영토 분쟁으로 발생한 난민들의 생활 및 정착 지원, '2007-2015 청년해외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음.

3. 대외거래

□ GDP 대비 1.9%의 경상수지 흑자 기록

- GDP 대비 경상수지는 에너지 생산량의 감소와 국제에너지 시장의 가격 하락에 따라 2015~2016년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e	2018 ^f
경상수지	9,964	-222	-1,363	732	1,056
경상수지/GDP	13.3	-0.4	-3.6	1.9	2.5
상품수지	18,928	5,812	4,206	7,391	7,898
수출	28,260	15,586	13,211	16,125	16,985
수입	9,332	9,774	9,004	8,734	9,087
외환보유액	14,647	6,291	5,836	6,500	6,760
총외채잔액	5,798	12,008	17,068	17,240	16,681
총외채잔액/GDP	7.7	23.6	45.4	44.0	39.0
D. S. R.	5.2	5.5	8.1	11.1	10.5

자료: IMF, OECD, EIU.

□ 상품수지 흑자폭 증가에 따라 외환보유액 증가 추세

- 2017년의 수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약 16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8년에도 약 17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액의 증가에 따라 외환소득이 증가하여 외환보유액은 2016년의 약 58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6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도 67.6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총외채잔액과 외채상환비율은 안정적이나, GDP 대비 정부부채는 높은 비중

- 총외채 잔액은 2016년의 약 116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177.6억 달러

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175.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총외채 잔액 비율은 2016년 45.4%, 2017년 44%로 유사한 비중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39%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외채상환비율(D.S.R.)은 안정적 수준이며, 2016년 8.1%, 2017년 11.1%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는 1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권의 채무재조정으로 인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2016년의 51.1%, 2017년 46.4%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알리에프 대통령이 2003년 이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4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4선에 당선
 - 알리에프 대통령은 2018년 4월 대선에서 86%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2025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됨.
 - 2009년의 헌법개정으로 3선 중임 제한 규정이 폐지되었고, 2016년에는 대통령 임기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됨.
 - 알리에프 대통령은 2017년 2월에는 부통령직을 신설하고 자신의 부인인 메흐리반 알리에바를 수석 부통령으로 임명하였으며, 대통령 유고시 수석 부통령이 대통령을 대행할 수 있음.
 - 전체 의회 의석수 125석 가운데 여당인 신아제르바이잔당과 친여당 의석이 110여석 이상으로 여당이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형성하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반정부 집회 개최

- 높은 물가상승률 및 실질소득 감소와 권위주의적 국가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결합하여 시위가 발생하고 있음.
- 2017년 4월에는 알리에프 대통령 부인의 부통령직 임명과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비판하는 집회가 약 3,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바쿠에서 개최되었으며, 9월에도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쿠에서 시위가 발생하였음.
- 2018년 3월 말, 4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 보이콧을 주장하는 시위가 바쿠에서 발생하였음.
- 2018년 월평균 임금은 2017년에 비해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2017년 12%에 달한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인해 실질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평가됨.
- 주요 반정부 인사에 대한 구속, 정부 비판 언론인 구속, 국제 NGO 단체의 아제르바이잔내 활동제한, 국내 NGO 단체의 외국으로부터의 지원 금지 등의 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3. 국제관계

□ 아르메니아와의 영유권 분쟁으로 긴장상태 지속

- 1991년에 발생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영유권을 둘러싼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분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1994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2016년 4월 대규모의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등 산발적인 충돌이 지속되어 아제르바이잔의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EU와의 협력 지속

- 아제르바이잔은 EU와 정치 및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언론, NGO 정책은 EU의 비판을 받고 있음.

- 1996년에 'EU-아제르바이잔 파트너 협력(agreement on partnership and cooperation)'이 체결되었으며, EU는 2009년 구소련의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아제르바이잔을 '동방 파트너' 국가에 포함하여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EU는 가스 수입 다변화를 위해 아제르바이잔의 카스피해 지역으로부터 가스 수입을 위한 수송로 연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등은 아제르바이잔의 에너지 부문에 투자하고 있음.
- 그러나,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권위주의적 정책은 EU로부터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EU와의 협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중장기 외채가 대부분

- 2017년 9월 말 기준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인수 승인 잔액은 단기 2억 530만 달러, 중장기 37억 5,950만 달러 등 40억 125만 달러임.
- ECA 외채 잔액은 2016년 10월의 41억 1,870만 달러에 비해 다소 감소한 금액이며, 이 가운데 단기 10만 달러가 연체되고 있음.

2. 국제시장평가

□ 신용평가기관들이 기존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S&P와 Fitch는 2018년 1, 2월 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

- S&P는 2018년 1월, Fitch는 2월 마나트화 환율 안정,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의 긍정적 평가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전망을 기존의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하였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 (2018. 1)	5등급 (2017. 1)
Moody's	Ba2 (2017. 8)	Ba1 (2016. 4)
Fitch	BB+ (2018. 2)	BB+ (2017. 2)

3.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4> 한·아제르바이잔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주요품목
수 출	269,573	122,289	118,289	53,310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
수 입	54	3,404	337	885	냉난방기, 전자기기, 원동기 및 펌프
합 계	269,627	125,693	118,626	54,395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국교수립: 1992년 2월 23일(북한과는 1992년 1월 30일)
- 주요협정: 항공협정('06), 외교관상호사증 면제협정,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 이증과세회피와 탈세방지협정(이상 '08),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2),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및 교환협정(이상 '13)
- 대 아제르바이잔 직접투자(2017년 말 누계): 22건, 534만 달러

V. 종합 의견

- 에너지 생산량 감소에 따라 2017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되었으나, 전반적인 경제지표는 2016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며, 2018년에는 경기가 회복되며 1.3%의 경제성장률과 0.7%의 GDP 대비 재정수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BTK 철도와 같은 국제운송로 연결을 통해 운송망이 크게 개선되었고, TANAP 가스관 건설을 통해 에너지 운송망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류망, 에너지 수송로 건설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2003년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알리에프 대통령이 2018년 4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86%의 득표율로 4선에 당선되어 2025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됨.
- 대외적으로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이후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EU와의 협력관계가 강화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등 대러 관계는 개선되고 있음.
- GDP 대비 총외채잔액과 외채상환비율(D.S.R.)은 안정적인 수준이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다소 높으며, 2018년 초 S&P와 Fitch는 신용등급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하였음.

조영관 선임연구원(☎02-6255-5759)

E-mail: ykj@koreaexim.go.kr